

제 1 회 세계한국학대회

오사카 거주 재일교포 1 세 사회의 제주방언 변화

-보수형의 보존을 중심으로-

(일본 오사카경제법과 대학 객원연구원)

강  
장  
호  
한  
남  
대  
학  
교  
국  
어  
국  
문  
학  
과  
교  
수

## 1. 조사목적 및 필요성

일반적으로 이민 사회의 언어 변화는 모국의 언어 변화 속도보다 느리다. 이 말은 동일 언어권 안에서는 지역 간의 활발한 접촉으로 인하여 그 변화 속도가 상대적으로 빨라질 수밖에 없지만 이민 사회 안에서는 이러한 간섭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민 당시의 언어를 그대로 장기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이민 사회 안에는 모국보다 보수형을 더 많이 간직하게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조사는 이런 맥락에서 지금부터 한 세대 또는 두 세대 이전에 일본 사회로 이주해감으로 인해서 표준어의 간섭을 받지 않았을 오사카 거주 재일동포 1 세 집단 안의 제주방언 1 세 화자들의 방언 사용 실태- 방언 변화를 파악하는 데에 기본 목적이 있다.

방언이 변화하는 양상은 보수형을 유지하면서 한 편으로는 외부 언어의 간섭으로 인한 갈등의 연속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본 발표에서는 이 이주 지역의 1 세 집단이 보존하고 있을 제주방언의 보수형들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왜냐하면 이 조사 결과는 현재 제주도 현지의 방언 변화 현상 및 속도와 대비하므로써 이 방언의 방언사를 기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조사 결과의 중요성은 언어 변화를 결과물로서가 아니라 과정으로 관찰할 수 있다는 증거 제시와 본 조사가 완료된 후 2 차로 행해질 제주방언 변화에 관한 조사의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 2. 조사 내용

본 조사 내용은 제주방언을 다른 지역 방언과 변별하는 언어 변수인 음가 ‘·’의 발화 빈도수를 기초 어휘를 통해서 확인하는 작업이다. 국어사 연구에서는 음가 ‘·’의 마지막 소멸시기를 18 세기 후기로 보고 있다.(이기문, 1972:138) 그런데 이 2 세기 전에 육지에서는 없어진 음가 ‘·’가 제주방언에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바로 이 방언이 육지로부터 오랫동안 고립되어 온 까닭에 그 만큼 언어 변화 속도가 느리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 방언에 존재하는 음가 ‘·’에 대한 조사 보고는 이승녕(1953), 현평효(1964)의 국어학적인 것 외에 민담, 설화 자료 안에서 이 음가의 발화 현상을 알 수 있는 자료로서 1950 ? 60 년 대의 60 대 이상을 대상으로 채록한 진성기(1974)와 1970 년 대 조사한 현용준(1984)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진성기(1974)와 현용준(1984)의 자료를 비교해 보면 불과 10 년 사이에 음가 ‘·’의 발화 빈도가 상당한 정도로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어휘, 형태 상에서 표준어화한 개신형의 양이 많아진 것으로 채록이 되어있어서 마치 15 세기 자료와 18 세기 자료에서 느끼는 언어 상의 변화를 느끼게 된다. 앞의 두 자료에서 느끼는 방언 상의 차이는 이 지역 방언에서 이미 1960 년 대 이미 음가 ‘·’가 급격히 소멸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해준다. 그렇다면 현용준(1984)을 근거로 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이다.

즉, 1970 년 대의 60 대를 음가 ‘·’의 마지막 보유 세대로 본다면 이들의 생존 최장 시기를 90 대가 되는 20 세기 말에는 이 방언에서조차 이 음가 ‘·’는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가정이 참이 되기 위해서는 제주도라는 동일 공간이라는 조건 하에서만 가능하다.

그렇다면 위의 두 자료집의 채록 시기와 맞물리는 시기인 1970 년 대와 그 이전에 이 지역에서 일본 사회로 이주한 이 방언 화자들 집단에서 30 년, 즉 한 세대가 지난 2002 년 현재, 음가 ‘·’의 존재 여부는 어떠할까? 만일 존재한다면 그 유지 정도는

제주도 현지와 어떤 정도의 차이를 보일 것인가? 또한 어휘, 형태부에서 표준형으로 대체된 당시의 개신형의 발화 빈도수의 정도는 어느 정도일까? 하는 의문점이 제기될 수 있다. 바로 이 점에 본 조사의 중요성이 있다.

### 3. 조사과정

#### 3.1 조사 기간과 대상 지역 및 집단

본 조사는 2001년 10월부터 2002년 5월 15일까지 약 8개월에 걸쳐서 일본에서 제주 출신 재일 동포들이 가장 많이 밀집해서 거주하고 있는 오사카 시 生野區와 東大畠市の 제주 출신 1세 집단을 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본 조사에서는 기존의 연구, 조사들이 주로 고령자 1세 집단만을 대상으로 한 것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이유는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재일 동포들의 1세 집단의 나이 분포와 이주 시기가 폭 넓게 퍼져 있기 때문이다. 즉 1세 집단 안에서도 방언 차가 존재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3.2 조사 단계: 1) 예비조사, 2) 본 조사

##### 1). 예비조사( 2001. 10 ? 11: 2 개월 )

이 단계는 방언학에서 행해지는 조사 지역을 사전에 예비답사하는 성격과 동일한 의미의 현장 답사였다. 대상 지역은 生野區에 있는 朝鮮市場이었다.

이 곳에서의 예비조사는 상인들 중 주로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제주방언으로 값을 묻거나 식품 이름 등을 물으면 상대에 따라서 본 조사자에게 제주방언으로 대답을 해 주는 형식을 택했다. 결과는 노년층의 제주방언은 물론 중년층의 제주방언 등을 들을 수가 있었고 제주방언 구사력에도 나이 계층에 따른 다양성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한국어보다는 일본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언어적 분위기는 곧 본 조사의 표본집단을 선정하는 데에 중요한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그 외 본 예비 조사 기간에 발견한 중요한 방언 외적 언어현상은 朝鮮市場에서 만난 한국인들의 일본어 발음과 구사력이 이주 당시 나이와 출신 지역이 변수로 작용될 것이라는 점이었다. 특히 경상도 출신과 제주도 출신 중년 여성이 대화하는 것을 자유채록하는 동안 그들이 섞어 쓰는 한국어와 일본어 속에 출신 지역의 방언 톤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었다.

### 4. 본 조사( 2001. 12- 2002. 5. 15)

#### 4.1 조사대상 집단 선정- 표본집단 선정 과정

1). 제보자 접촉 방법- 소개 및 직접 접촉

개인적, 민단, 종교 단체(개신교, 카톨릭 교회, 불교, 무속),

사회복지 시설, 야간 중학교, 친목, 동우회, 공원(남성 집단), 시장

2). 제보자 선정 기준

① 본 조사 내용과 목적이 보수형의 유지와 접촉 현상, 둘로 나누어 행하여야 하므로 제주방언 구사가 능숙한 1 세대.

② 1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10 세 이하의 나이에 부모를 따라왔으나 제주방언을 ①의 정도로 구사하고 있는 1.5 세대.

③ 1 세대지만 본 조사자와의 대화에서 일본어를 주로 말하거나 발음상 일본어의 간섭을 많이 보이고 있는 자는 접촉 현상에 대한 조사 대상으로 인정했지만 본 조사 항목인 음가 ‘·’의 제보자에서는 제외하였다.

④ 최근 10 년 내에 제주도나 서울, 부산 등에서 1,2 년 이상 거주한 경험이 있는 자는 제외하였다.

④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한 세대 전인 1960 년대까지 이주한 1 세대.

2)의 제보자 선정 기준에 의해서 선정된 제주 출신 1 세( 32 명 )의 집단을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 제보자 집단 표> 표-1

이주시기	1920	1930	1940	1950	1960
인원수(32 명)	1	4	10	12	5
나이분포	82	81-80	80-74	89-58	62-52
이주당시평균나이	07	14	19	20	21
이주당시나이	07	10-15	15-25	12-43	19-25
분포(차이)	(0)	( 05)	(10)	( 31)	( 06)
현재 생업	무	무	무	가내수공업 (01)	향토음시점(1) 가내수공업(1) 식품가게(2)
학력	무	무	무	초등 중퇴(1)	중 졸(2)

				초등 졸(1)	
출신 지역	한림	대정,조천 삼양, 신촌	신산,고성 서귀,김녕(2) 법환,강정 조천(2),신촌	신촌,평대(2), 법환,대정(2) 제주,오조,시흥 서귀,하귀,김녕	김녕(2),제주 애월, 화순

2. 조사방법( 질문지, 조사자와의 대화, 제 3 자와의 대화 )

1. 1 차 조사 ? 기초어휘 보수형 조사 (2001.11 ? 12 )

앞의 제보자 집단표에 제시된 제보자를 포함한 제주출신 고령자 여성들 중에서 70 대 이상의 2 명을 대상으로, 기초어휘의 보수형 사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제주어 사전>에 등재된 기초어휘 중 제주 전역에 걸쳐서 동일하게 사용되는 항목 중에서 보수형이라고 간주될 수 있는 어휘들에서 동사; 17 , 형용사; 20, 부사; 15, 관용표현;10, 명사; 20 등 총 82 개 항목을 아래와 같은 질문지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보자들과 문답식으로 조사 시도하였다.

● 질문지의 예

부역에 술을 걸어 놓은 데를 무엇이라 합니까?(답: 술덕/ 표준어: 부뚜막)

결과는 제보자들의 나이의 고령으로 기억력이 감소되어 시간이 예상보다 많이 걸리는 비능률성이 나타났다. 또한 질문 방법에서도 조사자가 무의식적으로 표준어로 설명하면 “우린 표준어는 몰라, 제주말로 설명해사주.”라는 식의 의사소통 상의 혼선이 생기는 것도 발견하게 되었다.

1 차 조사의 실패 원인은 국내에서 조사하던 방법을 그대로 적용했다는 점이다. 즉 제주도 현지에서 조사하는 경우, 어느 정도 표준어가 개입이 되어도 고령자들과의 의사소통에 무리가 없었지만 표준어와 접촉이 없던 시기에 제주도를 떠난 이 지역의 고령자들에게는 조사자가 무의식적으로 사용한 표준어인 ‘부역, 아궁이’라는 어휘는 생소한 것이었다. 따라서 1 차 조사 결과로 질문지 형식을 수정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2. 2 차 조사 ? 기초어휘 보수형 사용 실태 확인 조사 (2002. 1 ? 2 )

1 차 조사에서 기초어휘 항목 82 개가 모두 이곳 고령자 집단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조사 방법을 기초어휘 보수형 사용 실태를 확인하는 형식의 질문지 형식( 아래 참조)으로 기초어휘 항목을 보충하여 수정하였다.

1 차( 동사; 20, 형용사; 10, 부사; 6, 관용표현; 5, 명사; 24 개 합 65 개) 2 차( 동사; 25, 형용사; 5, 부사; 4, 관용표현; 7, 명사; 30 개 합 71 개)

- 질문지의 예
- 오사카에서 제주도 사람들끼리 제주말로 말할 경우 다음 물음에 대하여 해당하는 답을 <보기>에서 골라서 O 를 해주십시오.

<보기>

1. 예	1. 나는 쓰지 않지만 어른들이 쓰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다.	3. 처음 듣는 말이다
------	---------------------------------------	--------------

눈길에 미끄러진다는 의미로 ‘넙끼린다’는 말을 씁니까?

( 1. 2. 3.)

수정한 질문지는 표본 집단으로 선정된 고령자 70-80 대 집단 4-5 명과 60 대 6 명에게는 집단 면접을 통해서 2 차에 걸쳐서 조사했다. 이 집단 면접 과정에서 1 세대 집단 안에서도 나이라는 독립변수가 작용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리고 50 대 집단( 5 명 )와 1960 년 대 이후에 이주해온 남성들( 60 대 1 명, 50 대 1 명 )에게는 질문지에 표시를 의뢰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3) 3 차 조사 ? ( 2002. 3 ? 5. 15 )

ㄱ) 이주 시기에 따른 언어변수 발견. 조사항목 설정-문답식

ㄴ) 제일 동포들의 모국어에 관한 언어의식 조사 ? 설문지

ㄷ) 제주방언 화자들의 제주방언에 관한 방언의식 조사- 문답식

3 차 조사는 앞에 제시된 제보자들과 1 : 1 로 조사 항목에 대하여 개인 별로 문답한 개별 조사였다. 조사 항목은 2 차 조사 과정에서 제보자들과 조사자의 자유로운 대화와 제 3 자와의 대화에서 이들 1 세 집단 안에서 예상했던 나이차에 따른 방언 변이형을 중심으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음운, 어휘 등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작성하여 진행하였다. 특히 음운 분야에는 음가 ‘·’의 유지 현황에 초점을 두어 문헌어과 관련되는 어휘 항목들을 대상으로 작성하였다.

질문 방법은 1 차 조사에서와는 달리 해당 어휘 항목에 대응하는 일본어를 제시하고 이 말을 제주 방언으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는 번역식 질문법을 채택했다. 이 질문법은 조사자와 제보자들 사이에 의사소통 상의 혼선이 제거될 수 있어서 음가 ‘·’에 대한 어휘 항목 20 개를 조사하는 데 일인 당 평균 15 분 정도면 충분히 조사를 마칠 수가 있었다.

그러나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고령자와 비고령자 집단에서 새롭게 발화되는 언어변수가 나오면 그 항목도 추가하는 형식을 취했다. 그 결과 변수가 될만한 항목은 음운, 어휘, 형태, 통사 구조에 이르기까지 45 여 개에 이르게 되어 동일 제보자에게 추가로 2-3 회씩 재조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그러나 자료 분석 결과 2 차 조사에서 기대했던 나이차에 의한

변이형은 예상했던 만큼 큰 변수로 작용하지 않고 오히려 이주 시기에 의한 변이형이 이 집단을 양분하는 변수가 될 것이라는 사실이 부각되었다.

그 외 3 차 조사 과정에서는 예비조사에서 제기된 세대 간의 제주방언 구사능력의 정도와 관련하여 이 지역에 거주하는 동포 1 세와 2 세 집단의 표본으로 가정할 수 있는 여성회를 대상( 30 세 이상의 1 세; 23 명, 2 세; 20 명 )으로 하여 14 문항에 걸쳐서 모국어에 관한 이들의 언어의식을 설문지로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는 추후 논문으로 발표 예정 ) 이 조사는 제주 출신 재일 동포 2-3 세대들의 제주방언 구사 현황을 살펴보기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리고 제주방언 제보자들과 개별 조사과정에서 문답식으로 관련 문항을 발췌하여 방언에 대한 의식을 자연스럽게 조사하였다.

#### 4. 조사 결과

##### 1. 기초어휘 보수형 사용실태 확인 조사 ? 집단 면접 및 질문지

2 차 조사에서 채택한 집단 면접 방법은 짧은 시간 안에 모집단이 사용하고 있는 이 방언의 보수형들의 유지 현황을 조사하는 데 유익했다. 더욱이 동일 방언권이지만 출신 지역이 다른 제보자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역 별 변이형도 아울러 조사되는 소득을 얻을 수가 있었다.

2 회에 걸쳐서 확인한 136 개 어휘 항목의 사용 실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령자 집단에서는 ‘주머니를 **계와** 라고 합니까?’ 라는 항목에서만 3 번의 ‘처음 듣는 말이다’ 에 대답을 하고 나머지 135 개 어휘 항목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는 응답이 나왔다.

비고령자 집단인 60 대 집단에서도 지역 별 변이형이 있을 뿐 고령자 집단과 큰 편차를 보이지 않는 136/ 130 의 정도로 확인이 되었다. 그리고 참고로 조사 대상으로 했던 60 대 남성의 질문지 결과도 동 세대인 여성 집단과 동일한 비율로 나타났다.

그러나 50 대 여성 집단 (5 명)과 같은 세대인 남성 (1 명 )에게서 조사된 결과는 앞의 결과와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즉 여성 집단의 응답 결과는 ‘1. 예’ 에 응답한 항목이 92- 107 개, ‘2. 나는 쓰지 않지만 어른들이 쓰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다.’에 응답한 항목이 34 - 22 개, ‘3. 처음 듣는 말이다.’에 응답한 항목이 10 ? 7 개로 표시되었다.

이 결과에 따르면 1 세대 집단 안에서 보수형의 사용 실태에 따라서 60 대와 50 를 분기점으로 크게 두 집단으로 나뉘어질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 해석이 참이라면 왜 60 대 집단과 50 대 집단이 분기점이 되어야 하는가? 라는 의문점이 제기된다. 결국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제보자들과 3 차 개별 문답식의 조사 결과에서 찾아질 것이다.

##### 2. 제주방언 화자들의 방언의식

이 지역에서 제주방언의 보수형이 제주도 현지보다 잘 보존될 수 있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요인은 1 세대 집단에 속하는 제주 출신자들이 자신의 방언에 대한 확고한 정체성이라 하겠다.

일본 속에서 교포들의 언어 사회는 ‘언어의 섬’이라기 보다는 ‘언어의 성’이라 하겠다. 성 안에서는 필요에 따라 한국어를 사용하지만 일단 성문을 나서면 한국어는 성 안에 그대로 남겨진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자료가 바로 3 차 조사 기간에 교포 사회의 여성 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 제일 교포들의 모국어에 대한 언어의식 > 조사 결과이다. 이 조사에 의하면

‘당신은 朝鮮市場에서 어떤 말을 주로 씁니까?’라는 문항에 대한 응답이 42 명 중 70% 이상인 32 명이 ‘한국말과 일본말을 섞어 쓴다’(이 경우 일본말의 양이 더 많음) ‘일본말만 쓴다.’ 8 명, ‘한국말만 쓴다.’ 2 명.으로 집계되었고

‘당신은 오사카 시내나 전철 안에서 교포 친구와 함께 할 경우에 한국어로 대화합니까?’ 라는 문항에 ‘아니오’ 가 42 명 전원이 집계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언어 사회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우위를 차지하는 지역 언어가 바로 제주방언이다. 이 방언이 교포 사회에서 상대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이유는 제주방언 화자의 인구가 많기도 하지만 좀더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방언에 대한 정체성이 확고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언어의식이 그것이다.

1. 방언 정체성 어휘; ‘제주도 → 우리’, ‘다른 지역 → 육지, 바깥’,  
‘우리 마을 → 우리 세계’  
2) 방언에 대한 자신감, “나는 표준어는 전혀 몰라, 배운 게 제주말 뿐이라.”
2. 방언에 대한 친근감, 애착심; “제주말 들어지민 막 반갑주. 정다워.”
3. 배타심, 결속심리; “ 제주 사름이 제주말, 곧주 어딿말 고라?”

### 5.3 음가 ‘·’의 유지 현황

음가 ‘·’는 현재 제주 지역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외부와의 접촉이 적은 벽촌의 고령자들에게서나 들을 수 있고 대부분의 지역이나 비고령자들 사회에서는 ㅓ, ㅕ, ㅛ로 발화하고 있다.

#### 1) 음가 ‘·’의 국어사적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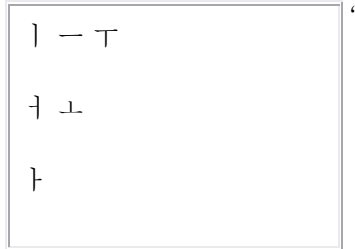
1. 발음 방법 - 訓民正音, 解例; 中聲解

‘· 舌縮而聲深’



‘ㄱ은 ·와 같으나 입이 오무러지는 바, 그 모양은 ·가 一 와 합해서 된 것이라,…. ㄴ은 ·와 같으나 입이 벌어지는 바 그 모양은 丨 가 ·와 합해서 된 것이라.’ (口麤, 口張의 원리)

ㄴ) 모음체계 상의 위치



ㄷ) 소멸 시기

\* 1 단계 소실 ? 16 세기에 제 2 음절 이하에서 一, ㄴ 로 합류.

\*2 단계 소실 ? 18 세기 중반 이후부터 어두음절에서 丨 로 합류.

1. 조사대상 어휘 항목(20 개)

내리다; / n? rida /, 무섭다; / m? s ?pda /, 가깝다; / b? dida /,

다르다; / tt? ?nada /, 결; / j ?kk? s /, 짧다; / j? rida /, 같다; / g? ttida /, 갈다; / kh? ttiŋ-h ?da /, 한달; / h? n-d? r /, 나물; / n? m? r /, 사월; / s?w?r /, 차차; / ch ? ch? / 달다; / d? rda /, 바람; / b? r? m /,

메밀; / m? m? r /, 딸; / tt? r /, 쌀; / ss? r /, 닭; / d ?k /, 얼굴; / n? s /,

흙; / h? k /.

본 조사에서는 주로 1)의 ㄷ)에 보이는 2 단계 소실의 연장선에서 이 방언의 어두음절의 ‘·’가 丨 로 합류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이전 시대의 음가 ‘·’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어휘항목을 3 음절어 이상 8 개, 2 음절어 7 개, 1 음절어 5 개로 모두 20 개로 제한했다.

3) 자료 분석 및 해석

이상의 어휘 항목에 대한 32 명의 제보자들의 발음이 녹음, 기록된 자료를 우선 개인 별로 통계를 냈다. 자료 분석에서 발음 판정의 기준은 음향분석기가 없는 상태이므로 조사자의 청각적인 경험과 직관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발음에는 ‘O’,

의심스러운 발음에 대해서는 ‘?’ 를 표시하여 분석자의 주관성을 최대한 배제하였다.

이런 분석 방법으로 우선 어두음절의 ‘.’ 의 음가를 유지하고 있는 제보자들개인 별로 각 항목에서 ‘0’ 표시를 얻은 숫자를 개인 성적으로 처리한 결과, 20 개 어휘 항목에서 최대 18 개에서 최소 0 개까지 다음과 같은 분포를 보여주었다.

<어두음절의 ‘.’ 의 발화 빈도수 분포> 표-2

발화 빈도수 ( 20 )	18	16	14	12	0
인원수 ( 32 )	5	9	9	4	5

표-2 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첫째, 어두음절의 ‘.’ 의 음가 발화 빈도수의 분산 범위가 6 개라는 점이다. 이들 분산도는 최대 발화 빈도수 18 개에서 최소 12 개를 뺀 것으로서 그 편차는 20/6 으로 약 30%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둘째, 발화 빈도수 12 개의 다음 단계에서 0 개로 급락한 현상이다.

이 기형적인 현상의 이유를 밝히는 방법으로서 위의 자료를 2 차 조사 과정에서 예상했던 나이 차를 독립 변수로 설정하여 재분석해 보기로 하였다. 과연 나이 차가 어두음절의 음가 ‘.’ 의 독립 변수가 될 것인가?

<어두음절의 ‘.’ 의 발화 빈도수 분포 ?나이 차> 표-3

나이/명(32)	나이분포	빈도수	인원수	평균발화수	백분율(%)
80 / 9	80-82	18	5	16.6	83
	(2)	16	2		
		14	2		
70 / 13	70-79	16	6	14.6	73
	(9)	14	5		
		12	2		
60 / 6	61-67	16	1	9.2	47
	(6)	14	2		

		12	1		
		*0	2		
50 / 4	52- 58	*12	1	3	15
	(6)	0	3		

표-3 은 어두음절 ‘·’ 의 실현 여부가 70-80 대 집단에는 변수가 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70 대에서 60 대로 오면 그 평균 빈도수는 9.2 로 급감하고 있고, 이런 급락 현상은 60 대에서 50 대 집단으로 오면 더욱 심화되고 있어서 이 음가가 어느 정도 나이차에 따라 종속변수로 작용하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표-3 에서는 70 대에서 60 대로의 평균 빈도수를 반으로 줄어 들게 작용한 요인이 60 대 집단에서 ‘·’ 발음을 전혀 하지 않은 2 명의 제보자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반대로 50 대 집단의 12 개를 기록한 제보자는 이 세대를 ‘·’ 의 유지 세대로 보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료 분석의 통계상으로 보면 이러한 요인은 현상을 설명하는 데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부분이 된다. 그래서 50 대 안에서도 어두음절 ‘·’ 의 음가가 유지되고 있다는 성급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시 60 대의 발화 빈도수 분포를 살펴보면 제보자 6 명 중에서 위 세대인 70 대와 동일한 양상을 보이는 3 명과 아래 세대인 50 대와 같이하는 3 명으로 나뉘고 있다. 특히 50 대와 동일하게 어두음절의 음가 ‘·’ 를 모르고 있는 제보자들이 반을 차지하고 있는 현상은 곧 이 60 대에서 음가 ‘·’ 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하게 한다. 그렇다면 이 세대들의 어느 시기부터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그리고 이 표-3 이 보여주고 있는 60-70 대 집단의 12 개와 동일한 발화 빈도수를 기록한 50 대 제보자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어두음절의 ‘·’ 의 발화 빈도수 분포 ?이주시기> 표-4

이주시기 / 명(32)	발화빈도수	인원수	평균발화빈도수	백분율(%)
1920 / 1	18	1	18	90
1930 / 4	18	2	16.5	87
	16	1		
	14	1		
1940 / 10	18	1	14	76
	16	5		
	14	3		

	12	1		
1950 / 12	18	1		
	16	3	14	71
	14	5		
	12	3		
1960 / 5	0	5	0	0

우리는 표-3 과 표-4 의 결과를 종합해서 우선 1940 년 대에 이주해온 (표-4) 70 대(표-3)까지는 어두움질의 ‘·’를 76% 이상 유지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 또 표-4 는 1950 년 대까지 이주한 집단에도 70% 이상의 ‘·’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 1920 ? 1950 년 대까지 30 여 년 동안의 이주시기에 걸쳐서 이 음가는 잘 보존되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1960 년 대의 이주 집단에서는 0% 를 기록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즉 1950 년 대에 71% 에 해당하던 이 음가가 불과 10 년 사이에 완전히 없어진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설명이다. 따라서 이러한 급락 현상의 원인을 표-3 에서 60 대에서 50 대로 전이되는 과정에서 보인 급락 현상과 전혀 무관할 것이 아니라는 개연성에 근거하여 <제보자 집단 표>에 주어진 자료에서 1950 년 대와 1960 년 대에 이주한 집단의 나이 분포를 중심으로 제보자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표-5 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50 년 대에 이주한 제보자들의 나이 분포는 본 조사에 참가한 제보자들 중에 최 고령자인 89 세(1 명)에서 70 대(6 명), 60 대(4 명) 58 세(1 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나이의 계층이 분포되어 있다. 또한 표-5 는 표-4 에서 왜 1950 년 대 이주 집단이 보수형인 어두움질의 ‘·’를 1940 년 대 이주한 70 대와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설명해 주고 있다. 그것은 70 대 이상의 제보자가 12 명 중 과반수에 해당하는 7 명으로 인해서 어두움질의 ‘·’의 유지율이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1950 ? 1960 년 대 이주자들의 나이 분포> 표-5

이주시기	1950 ( 1952-57 )	1960(1964-69)
인원수	12	5
현재 나이 /	89 /43, 79 / 30, 76 / 26,	62 / 25, 61 / 20
이주당시 나이	75 / 26, 74 / 26, 72 /	57 / 21, 55 / 19

	26, 70 / 23, 67 / 22, 65 / 18 64 / 19(2), 58 / 12	52 / 19
현재나이 분포 및 인원수	58 세 ? 89 세(31 세) 80(1), 70(6), 60(4), 50(1)	52 세 ? 62 세( 10 세) 60(2), 50(3)

또한 표-5는 표-3에서 60-70대와 동일한 발화빈도수 12를 기록한 50대 제보자 1명이 바로 이 시기에 이주했고 아울러 특히 12세에 이주한 이 제보자의 경우를 보면 방언 습득 시기보다는 방언 사용 환경이 보수형의 유지에 크게 작용되었음을 알게 해준다. 그리고 이 표-5는 표-4에서 어두음절 ‘·’의 발화 빈도수에서 0을 기록한 2명의 60대 제보자는 1960년대의 이주자임도 밝혀주고 있다. 결국 1950-60년대에 이주한 제보자들 17명 중의 70대는 1940년대의 이른 바 고령자 집단으로 소속되고 나머지 60대 6명은 어두음절 ‘·’를 발음하는 부류(4명)와 모르는 부류(2명)로 나뉘게 된다. 이와 같이 동일 세대이면서 한 그룹은 고령자 집단, 나머지 한 그룹은 비고령자 집단의 방언 성격을 보이고 있는 현상에서 이들의 이주 시기가 1953년(부○○,65/18)에서 1965년(한○○,62/25)이라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들 두 집단에서는 나이차보다는 이주 시기가 방언 차를 낳게 하는 변수가 된다. 이러한 논리 절차에 의해서 본 조사의 대상 집단인 1세 집단을 2그룹으로 나누는 분기 시기를 1950년대로 잠정 결정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다시 돌아가서 표-4에서 제기되었던 방언 변화가 10년 사이에 어두음절 ‘·’의 발화 빈도수에서 0을 기록할 정도로 급격하게 변화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이 의문은 이 시기에 제주도 현지에 급격한 방언 변화가 일어났음을 가정하고 그 요인을 언어 변화의 언어 외적 요인에 의하여 설명하는 방법으로 해결해 볼 수 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언어 외적 요인에 의한 언어 변화는 주로 심리적, 사회적인 작용이 화자 개인이나 집단에 영향을 끼친 결과로 생긴 변화를 말한다. 언어의 변화는 이러한 외부적인 요인이 작용하지 않는 한 규칙적이고도 점진적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일정 시기에 관찰되는 언어의 급격한 변화에는 언어 외적 요인인 사회적인 요인이 작용할 때다.

따라서 문제의 1950년대에 제주 방언 사회 안에서도 이와 같은 사회적인 변화가 있었으리라는 가정을 해야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다.

60대 이주자들의 출생 시기가 1940년대 전후라는 점에서 이들 집단의 방언 습득 시기를 1940년대에서 방언 습득 완성 시기를 1950년대로 가정한다면 이 시기에 이들의 방언에 영향을 끼쳤으리라고 예상되는 어떤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시기의 제주도의 사회는 두 번에 걸친 큰 사회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하나는 1948 년의 4.3 사건과 또 하나는 한국 전쟁(6.25 전쟁)이다. 이 두 전쟁으로 인하여 이 지역에는 육지로부터 많은 수의 토벌대와 피난민이 들어오게 된다. 이 두 사건 이전에는 육지와와의 접촉이 거의 없다시피 고립되었던 제주도에 이 시기를 전환점으로 하여 표준어를 비롯한 다른 지역 방언 화자들과의 언어의 접촉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된다. 또한 초등학교 교육의 확대와 1960 대로 오면 라디오의 보급이 이 방언이 표준어와의 접촉을 한층 높이게 된다. 육지에서 들어온 피난민들이 이 지역에 정착함과 아울러 제주 출신자들의 교육, 상업 등의 목적으로 육지와와의 인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한 시기가 바로 1950 년대이다.

따라서 1950 년대 이전에 일본으로 이주한 고령자 집단인 70 대 이상은 표준어나 다른 지역의 방언을 전혀 모른 채 제주도에 고립된 상태에서 그대로 일본이라는 사회로 이주해 왔기 때문에 그 고립된 연장선 상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요인으로 인하여 이 고령자 집단은 본 조사 대상인 어두음절의 ‘·’는 물론 이주 당시까지 사용하던 보수형을 그대로 간직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1950 년대에 이주한 70 대도 언어습득 완성 시기가 앞의 집단과 같으므로 육지 피난민들의 언어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주 시기가 변수로 작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60 대의 경우에는 표준어의 존재를 어느 정도 인식한 상태지만 아직 익숙하지 않은 수준에서 이주해왔기 때문에 표-3 에서 보인 바와 같이 발화 빈도수의 분포가 70 대보다 낮은 쪽으로 집중되어 있긴 하지만 70 대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다.

그런데 1960 년대에 이주한 60 대들은 언어습득 완성 시기인 10 대를 방언 변환기인 1950 년대를 제주도에서 지냈기 때문에 표준어와 다른 지역 방언의 간섭을 상당량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 시기의 개신형을 습득한 상태에서 일본으로 이주해왔기 때문에 1950 년대에 제주 방언 사회를 떠난 동년배들과의 방언 차를 보이게 된 것이다. 이들 60 대 집단에서 조사된 방언 차는 이 시기의 이 지역의 방언 변화가 언어 내부의 변화 결과로서의 변이형이 아니라 표준어인 개신형이 변수로 작용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 표-1 에서부터 표-5 에 근거한 자료 해석의 결과 이 1 세 집단이 두 그룹으로 나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 셈이다. 따라서 표-1 의 1 세 집단을 이주 시기를 변수로 설정하여 두 그룹으로 나눌 경우, 제주도가 경험한 두 전쟁의 시기인 1948 년부터 한국 전쟁이 끝난 1950 년대를 기준으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이주한 집단을 ‘전 전(戰前) 1 세’, 그 이후를 ‘전 후(戰後) 1 세’로 나뉘게 된다.

다음의 표-6 은 이 구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해주는 이들 두 집단이 보여주는 방언의 변이형들이다.

<어두음절 ‘·’의 발화 빈도수 ? 변이형> 표-5

이주시기(명)	1920	1930	1940	1950	1960	1970
변이형	(1)	(4)	(10)	(12)	(5)	(4)

ㄱ뜨다(同)	1	4	7	4		
ㄱ트다						
고뜨다			2	4	2	1
고트다			1	4	2	2
가트다					1	1
갈다						
ㄴ리다(降)	1	4	8	9		1
내리다			2	3	5	3
/h? k /(土)	1	2	7	5		
혹				3	2	1
흑		2	3	4	3	3

표-6에 보이는 어휘 항목은 조사 대상 어휘 항목 20 개 중에서 예를 뽑은 것이다. 표-6은 1950년대와 1960년대를 분기점으로 그 변이형의 분포가 보수형에서 개신형으로 이행해가는, 언어 변화 과정을 한 눈에 알게 해줄 뿐만 아니라, 이 방언의 어두음절의 ‘·’의 변화 양상을 알게 해준다.

표-6에 제시된 어휘 항목들은 그 음운 변화 과정을 국어사와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는 이 방언의 보수형이다.

‘갈다’의 경우 이 방언에는 두 개의 보수형과 한 개의 표준어 그리고 ‘고트다’와 ‘갈다’의 음운 접촉형인 ‘가트다’ 등으로 그 변이형이 다양하다. 이 4개의 변이형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형은 ‘-뜨다’이다. 그 이유는 이 ‘-뜨다’가 ‘?트다’보다 시기를 앞서기 때문이다. ‘-뜨다’의 경우는 15세기 문헌에서 이 동사 어간이 부사로 쓰이던 흔적만 보일 뿐이다. 그 후의 문헌에서는 ‘-에’ ‘ㅎ다’가 결합해서 유기음화로 실현된 ‘-트다’가 16세기의 비어두음절에서 —로 합류한 ‘-트다’로서 이 방언에 ‘-뜨다’와 공존하고 있다. 그러다가 1950년대 이후 표준어인 ‘갈다’가 들어 오면서 이 방언의 ‘-트다’형의 자유 변이형인 ‘고트다’형과 음운 접촉형인 ‘가트다 ~ 거트다’가 출현하게 된다. 제주 방언 화자들은 이 형식을 보수형과 타협한 결과물로서 ‘갈다’보다 보수형에 가깝게 인식하고 있다.

‘ㄴ리다’의 경우는 이 방언이 점진적이며 규칙적인 음운 변화를 경험하기 전에 표준어인 ‘내리다’로 대체되어가는 대표적인 예다. 음운 변화의 일반적인 과정을 거쳤다면 중세어의 모습인 어두음절의 ‘·’의 유지형 다음 17-8세기형인 ‘-리다’가 남아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과정이 없이 15세기 형식에서 표준어로 대체되어 개신형으로 이 방언에 공존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혹 / 혹’ 은 어두음절 ‘·’ 의 유지율이 높은 70-80 대 집단 안에서조차 이 항목은 3 개의 변이형을 보이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중앙어에서 음운 변화 과정을 겪은 시기에 가장 가깝게 음운 변화 과정을 경험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휘항목은 본 조사 대상 집단인 1 세 집단의 고령자 집단과 비고령자 집단에 ‘혹’이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 있던 것이다.

위의 3 개 어휘 항목만을 예로 들었지만 조사 대상 어휘 항목인 20 개의 어두음의 음가 변화를 조사한 결과 모든 항목이 ㅏ, ㅑ, ㅓ, ㅕ 로 합류하는 시기가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가 있었다.

## 6. 결론

이상, 본 조사를 통해서 얻은 자료에서 얻을 수 있었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이 집단의 89 세에서 52 세의 한 세대차를 보이는 제보자들의 방언 변이형들을 통해서 지금부터 길게는 두 세대에서 한 세대 이전의 제주방언의 살아 있는 모습을 그대로 관찰 가능했다. 마치 80-30 년(1920-60) 전에 찍어 두었던 영화를 보는 듯한 실제 시간의 제주방언을 관찰할 수 있었던 점은 사회언어학의 조사 방법인 현장 시간과 실제 시간을 복합적으로 조사하는 효과였다고 할 수 있다. 그 외 ‘언어의 변화 과정은 관찰 가능하다.’는 문법화론자들의 주장을 실제로 확인하는 작업이었을 뿐만 아니라 언어로서 방언 자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들의 의식 변화에 따라 일어나는 여러 변화들 중의 하나라는 점도 확인되었다.

둘째, 1 세 집단 안에서 나이차에 의한 방언 변화의 진행 방향이 관찰 가능했다.

나이차가 집단을 두 그룹으로 나누는 기본적인 변수이기는 하지만 이 1 세 집단의 경우, 1950-60 대 이주한 집단과 그 이전의 집단에서는 나이, 이주 시기, 방언 습득 시기의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현상은 언어 변화의 복합적인 요인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이 방언의 방언사에서 문제로 남아있는 제주도 현지에서는 이미 ㅏ, ㅑ, ㅓ, ㅕ 로 그 변화의 마지막 시기에 와있는 어두음절 ‘·’ 의 변화 초기 시기를 설정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본 조사에 앞서서 예상했던 이 방언 변화 요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사회적인 요인이었음에 비추어 즉, 제주도가 겪은 1948 년 4.3 사건과 1950-53 년에 겪은 한국 전쟁. 바로 이 요인이 1 세 집단을 두 그룹으로 나누는 변수인 ‘이주 시기’를 결정하게 된다. 이 사회적 요인에 의한 제주방언의 변화는 이 시기를 출발로 하여 급격하게 진행된다. 이 지역으로 들어온 외부인들과의 접촉 및 학교 교육의 확대, 육지와와의 활발한 교류 등의 사회적인 변화가 짧은 기간 안에 이루어짐에 따라 방언 변화도 급격해지게 된다. 이러한 현상의 반영으로서 이 시기 이전인 1950 년대 이전에 일본으로 이주한 현재 70 대 이상의 고령자 집단에는 보수형의 대표적인 어두음절 ‘·’ 가 70% 이상 조사될 수 있었으나 전후 1 세 집단인 1960 년대에 이주한 60 대 이하의 중년층에서는 이 음가가 ㅏ, ㅑ, ㅓ, ㅕ 로 합류한 이주 당시의 개신형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자료 분석에서 이 두 세대 집단의 언어 변수로 작용하는 어두음절의 ‘·’ 가 흔들리기 시작한 시기는 바로 이 1950 년대로 잡을 수가 있었다.



넷째, 전후 1 세 집단인 중년층이 사용하는 개신형은 현재 제주도 방언에서 볼 때 역시 보수형의 범주에 속하는 언어 형식들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방언형과 제주도 방언의 개신형과 또 다른 방언 차를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 이 집단의 방언 변화와 현지의 방언 변화의 대비 연구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다섯째, 이 1 세 집단이 방언 보수형을 제주도 현지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보존할 수 있는 사회적, 언어 심리적인 요인과 방언 변화의 독특한 방향에 대해서는 다음으로 미룬다.

## 7. 참고문헌

이기문(1972), <국어사 개설>, 탑 출판사.

이익섭(2000), <사회언어학>, 민음사.

제주도(1995), <제주어사전>

< 작성: 2002. 06. 06 >